

조정장 기회 삼는 동학개미, 삼성·하이닉스 매수 행렬

삼성 2.2조 하이닉스 3.8조 사들여
넌뛰는 코스피, AI·반도체 변동성 ↑
전문가들 “반도체 중심 성장 지속”

“실적이 워낙 좋으니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를 믿어요.”

15년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만 15억원 어치 모아온 사업가 김모(70)씨 얘기다. 그는 실적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도 1억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김씨는 “증시 조정기에 주가는 덜 떨어지고 꾸준히 이익도 나니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에게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000만원어치 사줬다”고 했다. 그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덩치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자산가뿐이 아니다. 올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행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조2003억원, 3조8228억원어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

치 순매수했다.

‘20만전자’와 ‘100만닉스’를 향한 동학개미의 짝사랑은 현실이 될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AI 시장을 고점 논란이 반복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의 최근 주가 하락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익보다 더 빠르게 오른 주가의 ‘속도’에서 나타난 문제로, 단기 조정에도

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원 홍콩증권 연구원은 “AI 투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투자 공급망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제공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아마존(2000억달러), 구글(최대 1850억달러) 등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는 실적과 함께 2026년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 총 합계는 약 6600억달러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연말 시장 예상치(컨센서스) 대비 100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투자규모의 2배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AI투자가 집행될 경우 엔비디아, AMD는 물론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 전반의 호황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 주말 시장이 반전에 성공했다”며 “급증하는 투자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업체들의 경우 이례적인 호황으로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처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골드만삭스도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8년간 이어질 것이다. AI에 대한 수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도 “지금 상황에서 AI 거품은 없다”며 “최근 불고 있는 AI 거품론과 관련해선 지금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양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40조 원에 달하며, 연간 기준 합산액은 90조원을 웃돈다. 기록적인 숫자이지만, 올해는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161조원, SK하이닉스는 13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욱 테크팁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동사의 할인 요소였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메모리 모멘텀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익은 아직 오롯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135조원,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실상 출하량 성장 없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젊을수록 해외투자… 세대별 투자전략 갈려

자본연 “해외 ETP 가진 20대 60%”
50대 국내 주식 비중 71.55% 차지

국내 개인투자자 가운데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 주식보다 해외 상장지수상품(ETP)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이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투자 확대가 해외 개별주식보다는 ETF·ETN 등 해외 ‘ETP 투자’ 증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약 5196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은 63.9%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별로는 해외투자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20대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ETP를 포함한 해외 ETP 보유금액이 60.0%를 차지해 국내 주식 비중(30.8%)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30대 역시 해외 ETP 투자 비중이 45.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23.7%), 50대(16.7%), 60대(12.8%)로 갈수록 해외 ETP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20대는 일평균 보유금액(3492만원) 가운데 해외 ETP 비중이 60.02%(2096만원)로 가장 컸고, 국내 주식 비중은 30.82%(1076만원)에 그쳤다. 반면 50대는 전체 보유금액이 6036만원으로 더 크지만, 국내 주식 비중이 71.55%(4319만원)로 압도적이었고 해외 ETP 비중은 16.65%(1005만원)에 머물렀다. 즉 젊은층은 해외 상장지수상품 중심으로 투자금이 쏠린 반면, 중장년층은 국내 주식 중심의 투자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투자자의 평균 보유 종목 수는 6.38개로 남성(5.5개)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분산투자 성향이 강했지만, 여성의 국내 주식 비중은 84.5%로 남성(81.6%)보다 높아 국내시장 중심의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과 측면에서는 해외 시장에 참여한 상당수 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위험조정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긴 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국내외 자산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전체 성과는 동기간 주식시장 수익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며, 해외시장 참여 역시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절반가량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넥스트레이드, 출범 첫해 당기순익 205억

출퇴근길 거래 수요 급증 영향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첫해인 2025년 한 해 2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전란 주요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2025사업연도 잠정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수익이 644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79억원과 205억원으로 전년도까지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섰다.

직전 사업연도 1238억원이었던 자산총계는 1508억원으로 증가했고, 자본총계도 1163억원에서 1367억원으로 증가

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7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2025년 3월 영업개시 이후 영업수익이 발생했고, 마케팅 및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복수경쟁 체제 전환을 목표로 작년 3월 문을 연 넥스트레이드는 급성장을 거듭 중이다.

당초 3년 내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출발했으나,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개설, 기존까지 6시간 30분이었던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하면서 출퇴근길 주식거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 GX EU, 운용자산 80억달러 달성

유럽 진출 5년 만에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유럽 ETF 자회사 Global X Europe(GX EU)이 유럽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운용자산(AUM) 80억 달러를 돌파했다.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디지털 유통 전략과 원자재·테마형 ETF 라인업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유럽 ETF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GX EU의 1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80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 ETF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25년 한 해 동안 운용자산은 214.6% 증가하며 유럽 ETF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AUM 10억 달러 이상 운용사 기준), 최근 3년 동안 유럽 및 글로벌 ETF 시장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유럽 ETF 시장의 운용자산은 약 5030조원으로, 미국(약 2경 100조원)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GX EU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에서 전략총괄을 역임한 게아블룸버그를 공동 대표(Co-CEO)로 영입해 경영 및 전략 역량을 높였다.

/허정윤 기자

한국증권금융 홍콩법인 출범식 개최

한국증권금융은 10일 증권금융의 첫 해외 영업점인 홍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대리), 홍콩거래소 및 홍콩소재 금융회사 등 약 30개 기관, 60여명의 현지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개소한 홍콩사무소를 홍콩법인으로 전환했다”며 “홍콩법인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3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작년보다 96%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 ETF의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1조 7135억원에서 약 95.6% 증가해 3조 352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반도체는 2006년 상장된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49.1% 이상 편입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반도체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편입,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한다.



KODEX 반도체는 연초 이후 4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 성과에 힘입어 이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2286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27.9%, 54.9%, 139.5%, 169.8%로 장단기 수익률에서 모두 성과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